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00 호 현대불교
2020년 7월 8일(음 5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64년

어떤 언어도 갖다 붙이지 말고 들어오는 대로 먹어 치워라



그림 · 최주현

애기를 하려니까 항상 기초적인 문제에 관한 건을 애기를 아니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중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항상 들어도 요것을 가지가지로, 그 한생각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요 믿는다는 것이 생각에 의해 틀어져서 둘이 될 수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선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러는 연관성이 있거든요, 믿는다는 것도.

요건 애기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애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박카스를 여기 놨다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박카스를 아무 소리 없이 먹는 것입니다. 상대와 상대가 있을 때는 이게 반드시 먹어지는 거죠? 먹고 넘어가는 거죠? 먹고 빈 병을 놓는 거죠, 놔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먹지 않고 놓는 거하고 먹고 빈 병을 놓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요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빈 병을 놓는 거하고 담긴 거를 그냥 놓는 거하고. "주인공에 모든 것을, 든 거나 안 든 거나 다 놔라." 한 거는 이 전체가, 일체 만법이 동일시한 그 자리를 넘어선 그 자체에 의해서, 그 자체를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든 거나 안 든 거나 모든 걸 놓으라고 했습니다. 맡겨 놔라.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이것이 든 거나 안 든 거나 다 일심에서 나고 드니까 모든 것을 일심에다 놓고서, 즉 "맡겨 놓고 거기를 믿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선, 그러면 맡겨 놓기만 하면 되느냐 이러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인제. 그런데 거기에 맡겨 놓는다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맡겨 놓고 가다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시를 넘어선 까닭에 편안하단 얘깁니다. 동일시를 넘어선다. 이 모든 것을, 이게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을 무조건 믿고 거기에서 들고 나는 거를 다 맡겨 놨기 때문에 그 일체의 모든 들고 나는 것에서 넘어섰다 이겁니다. 여기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맛을 보려야 맛볼 겨를도 없죠. 놓기에 바쁘니까. 맡겨 놓기에 바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묘미가 있는 것은, 때에 따라선 나는 지금 여러분이 '아프다, 가난하다, 우환이 끊는다, 인과응보다' 이런 문제들이 너무 사사건건이 많으니까 애석해서 볼 수가 없어. 나는 돈도 싫고 아무것도 싫어, 본래는. 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마는 여러분이 아후, 여기 병이 나서 이거 어떡하느냐, 뭐 어쩌고, 이거 죽으면 어쩌겠냐 이럴 때 난 어떤 때는 여기에서 웃음이 자꾸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아이, 살기 싫다도 없지마는, '뭘 그렇게 애틋하게 그러나?'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했거든요. 내가 뭐, 더 산다 덜 산다 이런 것도 느껴 보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생소하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날 때가 있죠. 허허허….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깐 때에 따라서는 스쳐 가는 그 바람이 너무 세. 아파. 쓰려. 이럴 때에 나도 여러분과 같이 쓰린 느낌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 말을 안 하고는 또 아니 되겠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 담긴 것이 들어오걸랑은 먹고 빈 병을 놔라 이겁니다. 또 안 담긴 게 왔으면 '여기는 당신이 하는 거니까, 내공에서 하는 거니까 이걸 담아 주는 것도 당신이지.' 하는 거를 생각하고 놔라 이거야, 빈 병을 놓더라도.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모든 일체 생활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고, 아주 극치적인 괴로움이 올 때도 있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요것을 반드시 빈 병으로 먹고는 놓고, 빈 병이 오면 담겨질 것도 믿고 들어가라 이거야. 믿고 들어가는 그 자체가 바로 놓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한 가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겸해서 할 수 있다.

예전에 내 그런 말 했죠. 부처님께서도 그때는 물리가 터지질 않고 지혜가 그렇게 풍부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효도하는 법이나 충성하는 법이나 또는 이 물리가 터지게끔 유(有)의 법을 다 가르치셨거든. 계법을 가르쳐 가지고, 그다음에 50%의 무(無)의 법을 유의 법으로 한데 끌어들여서 같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다음에 이 무의 법과 유의 법을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해서는 참 그게 당연해요, 그때 상황 속에서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머리가 깨이고 발전이 되고 이런 까닭에, 즉 말하자면 일체 만법이 그 돌아가는 동일시에서 넘어서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자기로 인해서 억겁을 통해서, 끊어짐이 없는 옛부터 나를 형성시켜서 나온 한 점의 그 근본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한 점의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낼 수 있는 까닭에, 우리가 지금 별의별 걸 다 하고 울고 짜고 야단난 것이 바로 그 까닭이거든.

그러니 좀 더 우리가 한 치라도 재빨리 놀자. 재빨리 하자.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것이 됐다면, 아, 스스로서 내가 잘 돌아가서 이게 하나가 왔다고 한다면 '아! 참 감사하다. 이게 당신이 있기 때문에 왔지.' 당신이 아니라 내공의 그 당신이야. 자기가 당신이 되고, 즉 말하자면 상구보리 하화중생 했던 셈으로 사량적인 나가 있고 사량적이 아닌 참나가 있다고. 그래서 무루의 참자기와 유루의 자기가, 즉 말하자면 항상 같이, 이게 마음이 유루의 마음과 무루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놓으라면 유루에도 무루에도 내놓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렇게 넘어갈 때에 이것이 담긴 것이 온다면, 이걸 잘 납득을 하셔야 돼요. 담긴 것이 오더라도 먹고 놓고, 안 담긴 게 나오더라도 이것은 바로 담아질 거다. 믿어라 이거야. 담아질 거다. 팔자도, 모든 것은 내공에서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고 아무것도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팔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팔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나 이런 모든 언어를 거기 갖다가 붙이지도 말고 몰락 들어오는 대로 먹어 치우고 마는 거죠. 빈 병도 먹어 치우고 담긴 것도 먹어 치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니 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못나게 한 것도 그놈이 한 거고 잘나게 한 것도 그놈이 한 거고, 업이 있다 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업을 안 지었다 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모든 게 그놈이 하는 거니깐 그놈한테 아예 놓되 감사하게 놓고, 먹고 치우고 먹고 치우고 다 먹어 치워라 이거야. 그런다면 거기에서 참 좋은, 그 자기의 참마음이 스스로서 만법을, 스스로 용을 할 수 있는, 아무 기탄 없이 그대로 집어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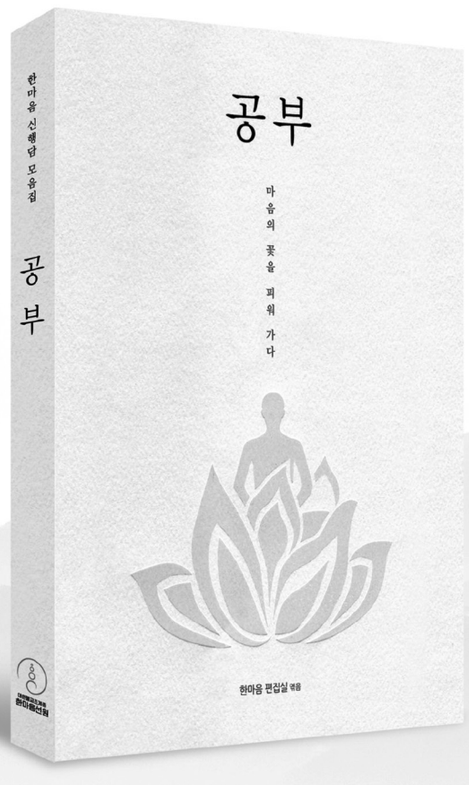
엊그저께 얘기했죠. 물이나 산이나 이 혈맥이 있는데 이 몸으로 비유한다면, 건성적인 혈맥이 있고, 세포가 건성적인 세포가 있어요. 또 그 한 꺼풀 속에 건성적인 게 아니라 중성적인 세포가 또 있다고요. 그 속 내부에, 즉 말하자면 정말 동맥과 정맥이 그냥 막 흐르고, 맥이 흐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지금 산의 혈맥도, '산' 하면 지구가 벌써 동일하게 돌아가요. 지구가 있음으로써 그 혈맥이 있는 거니까. 모두가 동일하게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뚱이와 같이 지구도 그 속에는 혈통과 모든 오장육부의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지난번에 다 얘기했죠?

그런데 이 산을 지관이 본다 이럴 때는 이 겉 맥만 보는 거예요. 겉 혈관이라고 할까? 건성 혈관만 보는 거죠. 그래서 건성이라는 것은 "산이 맥이 이렇게 흘렀다." 이게 건성이거든. 맥이 이렇게 생긴 것이 이렇게 흘렀다 그런다면 "맥이 흘렀구나. 그래서 이것이 흘러 버렸으니깐 여기는 복이 담길 수가 없어." 이러거든. 이 맥은 건성 맥이기 때문에 흘러 버렸다 이건데, 우리가 전기를 가설할 때도, 여기 지금 코드 꽂는 데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코드 꽂는 데만 만들어 놨지 가설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고 가설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 데나 꽂아서 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해 놓은 데나 들어와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혈맥이 그렇게, 우리가 침을 준다 하더라도 딱 꽂아서 침을 줄 데가 있고 침을 못 줄 데가 있죠. 그래서 요런 정수리나 눈, 눈에 정기가 들어오는 곳이 요기 양면에 있고 이 대뇌에 먼저 듣는 수신기가 여기에 있다 하면 그러한 문제, 송과체나 청과체가, 청각이나 백각이 머리에 다 이렇게 있고 그렇듯이, 우리 산맥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건성 맥을 본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술수라고 볼 수

☞ 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